

김관영 도지사, “과감히 도전해 달라”

10월 소통의 날 맞아, 도청 직원들과 새로운 전북 만들기 다짐... 하림그룹 회장 초청 특강 · 산불대응 최우수기관 시상 등

전북도는 27일 '10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2년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 포상금 전수 △한편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 기념품 증정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했다.



27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소통의 날 행사에 김관영 지사와 명사특강에 나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김관영 지사는 산립청 주관 2022년 산불예방·대응 평가에서 도 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가 선정되도록 노력한 산립청지사와 직원들의 성과에 대해 크게 격려하고, 국가 예산 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지사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 친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기업 애로해소 및 투자유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사는 “전라북도의 기업에 대한 환경 단속 문제를 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고와 개선 위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1기업 1공무원 매칭을 통해

도청에 있는 공무원 500명 정도를 주 1회 유선 연락 월 1회 기업에 직접 방문하게 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명사 특강에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강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 동북아를 향한 2개의 창”을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권이며, 한국의 새만금은 동아시아 시장의 지리적 중심이자 세계적 성장모델 K-경

제의 상징 공간이다”라며, “새만금의 여건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시장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품 허브’와 ‘컨벤션 허브’를 우선 추진하고 두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실현시켜 새만금 종합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 6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통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 5명’에 대해 김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이 캐리커처를 증정하고 격려했다.

한편 9월부터 새로 시작한 ‘소통의 날’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하는 민선 8기를 맞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변화와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고 새로운 전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을 담은 명칭이다.

도는 매월 1회 행사를 개최해 도청원인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2023년 예쁜간판꾸미기사업 공모

전주 · 익산 · 남원 선정 · 총 6억원 투입... 노후 · 불량간판개선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의 2023년도 예쁜간판꾸미기 사업에 전주 시, 익산시, 남원시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도는 노후하고 불량한 간판을 지역 특성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고 도시미관 창출을 위한 ‘2023년 예쁜간판 꾸미기’ 공모사업에 전주, 익산, 남원 시 3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작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재설치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맞게 광고물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시군 공모를 통해, 9개 시군 18개소에 4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남원시 김제시 2개 시군에 총 6억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창출에 힘쓰고 있다.

2023년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일까지 시군 공모를 추진하여, 사업계획, 주민참여, 지역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을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3개소는 전주 시 ‘개리단지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익산시 동서로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남원시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이다. 예쁜간판꾸미기 사업은 업소의

앞으로, 선정된 시군에서는 23년 초 간판디자인 설계 후, 간판 제작·설치를 내년 11월까지 추진하며, 시군별 예산도 정비비범구역 지정, 간판 디자인 경유제를 통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 주택건축과 심상희 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한부모 가족 돌봄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범위 넓혀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한부모가족의 돌봄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52%(소득인정액 218만1000원)에서 중위소득 58%(소득인정액 243만3000원)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3인가구 중위소득 60%(소득인정액 251만7000원)에서 중

위소득 65%(소득인정액 272만7000원)로 상향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52%초과 58%이하는 10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이하 월 35만원, 60%초과 65%이하는 25만원이 지원된다. 10월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내 89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아동양육비 급여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연 8

만3,000원), 시설 입소 시 생계비(가구당 월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소년한부모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가구당 월 1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2%(2인가구 234만7,000원)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자조모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받고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북도 자체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월동비, 피부비, 부교재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지원금, 고교생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양식 수산물 안전성 강화

양식장 인증 관리 대상, 추가 50개 확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한 양식장 인증 관리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도내 양식장 51개소 대상으로 안전한 양식장 인증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50개소를 선정하여 안전한 양식장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27년까지 도내 양식장 250개소를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안전

한 양식장으로 관리(인증 100개소, 인증대상 150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양식장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양식어가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수산기술연구소에 방문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받은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확대 지원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관련 교육 및 추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미인증 양식장과는 차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도,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

김종훈 경제부지사, 전주 남부시장 방문 · 화재 안전점검 진행

화재 예방시설 설치상황 점검 · 소방차 화재진압훈련 실시

전통시장의 화재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27일 전주 남부시장을 찾았다. 전북도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대형화재 사건을 계기로 도내

전통시장의 대규모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화재 안전 점검에서는 전주 남부시장의 화재 예방시설 설치 상황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소방차 화재진압 훈련이 함께 이뤄졌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청취도 함께 진행했다.

전북도는 매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소방 및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화재일립시설 설치사업’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날 경우 대규모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에 지속 관심을 기울이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화재 예방 관련 상인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화재공제에도 가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내달부터, 고품질 전북 김 본격 생산 돌입

전라북도의 수출 효자 품목인 ‘고품질’ 전북 김이 오는 11월 중순부터 초벌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군산, 고창, 부안지역 김양식 규모는 시설면적 5,280ha, 87,045척(1척: 2m×40m)으로 전년 동월 대비 수온이 낮아져 김 양식어가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채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김이 생산할 수 있는 적정 수온(22℃ 이하)을 유지하고, 영양염류가 안정적이며 해황 조건이 양호하여,

고품질 김 생산 증대가 기대된다.

전라북도에서는 고품질 김 생산 지원 및 양식어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하여 매년 우량 김 종자, 김 활성처리제, 지역별 작업 환경에 적합한 규격화된 물김 포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김 껍질 및 황백화 현상에 방을 위하여 10월부터 김 양식어장 예찰과 해수 분석을 강화(월2회~월4회)하여, 김 양식어가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극복”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한전 익산지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익산지사 직원 일동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